

## 제14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09. 6. 5(금), 15:00~17:45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8 참석

-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순일, 오상탁, 이화숙, 최인규, 김찬영, 이해진,  
김관균 평의원 (이중한 간사)

- 불참 평의원 : 이원희 부의장, 유승화, 유승익, 박윤규, 박상호 평의원

### 4. 회의안건

#### 가. 보고사항

- 제1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결과 주요사항

- 학칙개정 보고

#### 나. 의안(심의)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다. 논의사항

대학 평의위원회 자문 없이 2008학년도 결산(안)을 교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경위파악 및 책임소재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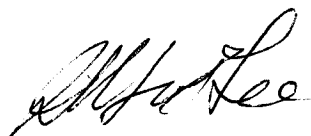
### 5. 개회선언

의장 이일영 : 재적평의원 13명 중 8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중한 : 오늘은 보고사항이 두 건 있습니다. 의안으로는 아주대교 학칙개정(안)이 있습니다. 논의사항은 지난번 의장님께서 대학평의위원회 자문 없이 2008학년도 결산(안)을 교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경위 파악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 제13차 회의 결과 주요사항들입니다. 평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학칙개정 보고사항이 11차부터 상정되었다가 계속 유보된 사항들입니다. 내용은 제4조(기구)에 교학부

< 간서명 란 >

의 장



총장이 교무부총장으로 바뀐 부분과 제6조(부총장)부분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에 규정류관리규정 제10조(학칙의 제·개정) 제2항에 따라서, 제2항의 내용은 기본법령 또는 상위 규정류의 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의 경우 교무회의 또는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앞에 말씀드린 규정류관리규정에 의하여 아주대학교 학칙에 반영한 부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의안심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중한 : 오늘 심의안건으로 아주대학교 학칙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해 학칙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기구표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간사 이중한 : 보건가족복지부에서 개정된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네

간사 이중한 : 그 다음에 일반대학원의 지식정보보안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정보통신학계열의 지식정보보안학과가 공학석사과정으로 석사과정만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의장 이일영 : 정보통신학계열의 석사과정입니까?

간사 이중한 : 네, 다음은 국제대학원의 국제개발협력학과의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유네스코와의 협약에 의해서 외국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국제대학원에서 재교육시켜서 다시 해외에 봉사요원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학과입니다.

의장 이일영 : 이것도 석사입니까?

간사 이중한 : 네, 석사과정입니다.

의장 이일영 : 국제대학원에 폐지되는 학과는 이미 삭제된 것입니까?

간사 이중한 : 국제대학원 학과 중에서 비활성화 학과, 과거 5년 이상 신입생 선발이 없었던 지역연구학과,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를 폐지하고 국제개발협력학과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엔 국제개발협력학과 신설에 따른 이수학점 추가 및 NGO학과와 이수학점 상향조정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4페이지를 보시면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차례로 보시면 기구표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지식정보보안학과 반영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지역연구학

< 간서명 란 >

의 장



과 석사과정과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가 삭제되고 국제개발협력학과가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질문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럼 교수님들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간사 이중한 : 아닙니다. 교원수는 동일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국제개발협력학과는 해외학생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간사 이중한 : 이 과정은 오픈 되어 있습니다. 주요대상은 유네스코와 협약에 의해 약 20여명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고, 특임교원과 필요한 교원 한두명 정도 충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 이일영 : 네, 질문 없으시면 학칙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사회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고 대학평의원회 자문이 없이 교무회의에 통과한 결산(안)이 이사회에서 확정되어 이미 교과부에 보내졌습니까?

간사 이중한 : 네, 6월 1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팀이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결산을 하려면 보통 평의원회 자문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역산을 해서 그때까지 자문을 못 받으면 이사회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규정상에 교무회의 전에 반드시 자문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과부 가기 전에 자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는 역산을 해서 이사회에 보내서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자문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상정하는 방법을 취해서 최대한 학교가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재단에는 2008 교비회계결산(안)을 상정할 때 자문을 받지 못했다 라고 표시해서 올렸습니다. 자문을 못 받은 사항이므로 그건 이사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아마도 교과부 자문을 받은 걸로 해서 이사회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처장님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대학평의원들에게 결산자문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신 시간이 평의원회 자문도 없이 결산을 확정된 교무회의가 종료된 다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수궁할 수 없는 게 '교무회의를 하기 전에 자문이 반드시 이루어 질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은 평의원회가 구성된 후에 이미 수차례 예결산 자문을 하면서 우리가

< 간서명 란 >

의 장



이해하고 있었고, 기획처장께서 우리에게 해 오신 것과는 다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무회의 전에 스케줄을 맞춰서 진행하려 노력해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교무회의도 일주일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서는 교무회의 전에 자문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자문을 안 받은 것 때문에 이사회에 안전을 올리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패널티 받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못 받아도 결산의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최대한 자문 요청을 하고, 자문을 받고 이사회가 열리면 결산(안)을 상정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우리는 교무회의 전에 최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했고 교무회의도 일주일 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문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이사회에 안전을 자문을 받지 못 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사회 안전으로 올렸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기획처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회의록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자문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죠?

기획처장 김민구 : 자문을 받지 못한 것은 fact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fact는 자문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자라는 것이 지난번 대학평의원회의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필요하면 총무처장께서 오신 다음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다. 교무회의 회의록이 나오자마자 교무처장께 전화를 드렸고 총무처장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무회의에서 결산안을 평의원회 자문없이 통과 시키실 때 ‘지금까지 매번 자문이 있고 나서 교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왜 이번에는 자문이 없는 가운데 이걸 통과시켜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교무의원들께서 분명히 가지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이사회에서 교과부에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 분명 그날 교무회의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발언을 들었기에 다른 교무의원들께서 자문 없이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는지 정확한 발언 내용을 전해주시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다음은 교무처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무처장 이중섭 : 그건 제가 한 발언이 아니므로 제가 말할 순 없을 것 같

< 간서명 란 >

의 장



습니다. 총무처장이 결산(안)을 발의했습니다.

간사 이중한 : 기획처장님은 그때 출장중이셔서 교무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네, 제가 그때 교육역량강화사업 발표로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총무처장님은 오시기로 했죠?

기록 진성호 :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의장 이일영 : 총무처장님이 발의를 했다가 총무처장님께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재단 이사회에서 교과부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문 구한 것에 대해서도 기획처에서도 그 쪽에 연락을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교과부의 담당 부서가 어디고, 부서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진성호 : 교과부 사립대지원과 박병렬 주무관입니다.

의장 이일영 : 교과부 사립대지원과 박병렬 주무관이란 말씀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기억하기론 자문을 요청을 했고 답을 못 받았고 다시 독촉해서 답을 못 받았으면 그냥 내도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다시 독촉을 했다는 게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공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자문에 대한 요청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자문 요청을 했고 못 받았고 다시 독촉을 했는데도 못 받았으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시 독촉이라는 게 지금 교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내신 그 공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우리가 지금 공문을 몇 번 보냈죠? 자문을 해달라고 공문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사실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두 차례 이상입니다. 자문을 요청한 건 두 차례 이상입니다. 불행히도 의장님이 그때 해외 출타중이셨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 두 번째 보내신 건 교무회의가 지난 다음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교무회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우리가 이사회 전까지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희한테 지금 말씀하신 공문을 보내신 날짜는 5월 19일 11시 33분으로, 교무회의 종료 후 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니, 지금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말한 것은 교무회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사회가 열리기까지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무회의에서 통과해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고쳐라 그러면 고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기획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전 노골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랑 똑 같은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니요, 그렇게 implication을 확대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안 맞아서 하다가 자문을 나중에 받았어요. 그럼 이사회에서 중요하니 반영해라 이러면 반영해야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얘기한 것이 논리적인 게 아닌가요?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안 했다면 저희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직무유기 시키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평의원 이순일 :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받지 않으신 것도 대학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양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신 겁니다. 대학평의원회를 완전히 노골적으로 무력화하시는 것이고요.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가 반대로 진행을 안 해서 이사회에 안 올렸다면 저희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입장 바뀌서 한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시면 시간 내에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어떻게 맞출 수 있었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왜 없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교무회의를 일주일 연기했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 다음에도 화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시간이 나흘이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회의에서 냉각기를 갖고 자료를 보완해서 자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나라도 하셨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우리가 교무회의 일주일 후에 또 한 것은 그런 노력이 아닙니까?

평의원 이순일 : 아닙니다. 그 동안에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료가 미비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심의 하자고 말씀 드렸는데 단 하나라도 보완을 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자료 보완이라는 것이 자문에 관한 자료 보완입니까?

평의원 이순일 : 그렇습니다. 공문을 지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문에 관한 자료 보완 요청이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실질적으로 결산자문이라 하면 물론 총무처장 오셔야 되  
겠습니다만 펀드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닙니까?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이 결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죠.

의장 이일영 : 다른 평의원들께서 혹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  
랍니다. 두 분이 하니까 너무 침예하게 되는데 다른 평의원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평의원 최인규 : 어렵게 생각도 못할 것 같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평의  
원회에서 결산자문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평의원회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의원회를 빠진 적은 없는데 우리가 자문을 거절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안이 촉박했기 때문에 평의원회 자문 없이 넘겼고  
교과부에 자문을 받았다 하는데 이번 결산 자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토론하  
거나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도  
평의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결산 자  
문에 대한 것에서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을 하지 않았지만 교과부 자문 받  
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이야기 하면 저는 추후에도 2학기 결산자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평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지만 외  
부에서 다 학교 오시면 힘들게 시간 내서 학교 오시는 분도 많으신데 들어  
오셔서 굳이 결산자문 할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도 그렇고  
매년 평의원들이 예결산 자문할텐데 그때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문 받  
으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례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님 오시면 어떤 절차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회의록을 검  
토하면서까지 절차를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아까 기획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이사회 회의록에 의  
하면 총장께서 분명히 시작을 해가지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왔다 하  
는데 거기에 대해선 전혀 설명 없이 진행을 시킨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과부에 문의를 해서 무엇을 받았다 이러한 것도 없고, 그 지적을  
하고 총장께서 거기에 냈는데 거기에 아무런 그거 없이 그대로 이사회에 안  
건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사장이 독단으로 처리한 것  
과 마찬가지로인데, 만일의 경우에 거기에서 설명을 해서 교과부에 사립대학지  
원과에 우리가 문의한 결과 '없어도 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고 그대로 교과부에 보고가 됐다면 이것 자체는 우리가 문  
제로 삼을 수도 있고 문제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에서 평  
의원회 기능 중에 이걸 빼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있는 한도에

< 간서명 란 >

의 장



서 교과부에서 그걸 받으면 안 되죠.

평의원 김찬영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우하고 이 부분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학생대표가 한 명 이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대학평의원회 라는 것이 참여정부 때 교과부에서 대통령명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정하면서 지정된 건데 대학평의원회 고유 기능 중 하나인 예결산 자문에 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사회에서 교과부 자문을 받았을 때 평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통과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획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추경 같은 경우에 평의원회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평의원회가 잠시 냉각기를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서 추경이 통과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시간이 기일이 더 길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도 추경을 했을 때 이사회로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이중한 : 추경과 본예산이 다른 것이 추경은 학교사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고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교과부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본예산은 법적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자꾸 시한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거꾸로 저희가 예결산과 추경을 자문할 때 기획처장님께 누차 부탁드린 점입니다.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것은 2월 28일 입니다. 저희한테 처음 결산자문 공문을 보내신 게 5월 11일경입니다. 3월~4월에 결산자문 과정을 시작하셨으면 애초에 시간에 쫓겨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처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회계가 종료된 다음에도 기술적으로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 합니다. 총무처장님과 두 분 다 제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사실은 실무에서 하셨어야 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처장님! 처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다른 평의원들 의견이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이런 내용으로 지금 와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끼리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가할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인규 평의원이 얘기한대로 재발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순일 교수님과 기획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에는 명확히 미숙하게 처리를 대학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은 사실상 얼마든지 커버할 수

< 간서명 란 >

의 장





있는 부분이었고, 저도 분명히 지난번에 평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완해서 그 다음에 평의회서 자문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고 자료를 보완하기로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언제쯤 연락이 올까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교과부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받았다 이런 부분도 지극히 평의회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자문을 받았느냐, 사실은 명확히 시간까지 난 이순일 교수님이 몇 분까지 써 있길래 이걸 왜 읽어 그랬습니다. 너무 교수님들 세심하다 소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뜻은 종결한 이후의 내용을 받았다는 그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해주시려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대학 측에서 미숙한 처리를 했다. 그리고 원칙이 지켜지려면 다소간 패널티 먹더라도 원칙은 지키면서 그 다음은 평의회에서 이런 일이 패널티를 먹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이렇게 진행하자 이런 내용으로 갔어야 맞는데 지금 책임소재를 따져서 뭐할 겁니까? 지금 이순일 평의원님과 기획처장님 하고 목소리 높여 해봤자 누가 책임지고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만 제 생각은 이번 건은 대학 측에서 처리를 미숙하게 했다. 이순일 평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실무적인 입장 조정을 해가지고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과는 저질러 놓은 상태에서 책임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교수님들 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과부 보고할 때는 평의회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간사 이중한 : 네, 기본 요건입니다.

의장 이일영 : 첨부 안하고 보냈습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그럴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평의회 회의록 없이 첨부하지 않고 말입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그렇죠. 회의록이 없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총무처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해진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저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총무처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무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제가 총무처장님과도 전화통화를 해서 들었던 얘기로, 다른 분들도 그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교무의원들이 대학평의원의 자문절차를 거치는 일련의 절차를 아실 텐데, 어떻게 평의회 자문도 없이 교무회의에서 결산이 심의 확정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그때 분명히 교무회의 자리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전해

< 간서명 란 >

의 장



들었습니다. 제가 교무처장님께도 듣고 총무처장님께도 듣고 다른 분께도 들었습니다. 교과부에다가 어떻게 문의하셔서 무슨 내용을 들어서 전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하여, 결산결과에 회의록이 붙지 않은 가운데 교과부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왜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유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문안을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말씀해주시시오.

총무처장 김병관 : 교과부에 결산안 보고를 6월 1일 까지 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이 첨부되었는지 아닌지 저희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보냈을것입니다’ 그 다음에 ‘첨부 안 되었을것입니다’ 라고 말씀 드린 건 회의록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종류의 서류가 무슨 문구로 작성이 되어 갔는지는 법인에서 하는 거라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먼저 말씀하신 거, 교무회의에서 무슨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 제가 혹시 뭐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 입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평의원 이순일 : 그냥 지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처장 김병관 :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총무처장의 발언 내용을 대신 말씀 드리는 것 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과 같이 결국 실무적으로 처장들께서 어떤 일을 하신 다음에 최종 문건은 법인에서 교과부에 올릴 것이며, 처장들께서는 교과부 보고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일 겁니다. ‘왜 평의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면, 이러 이리해서 안 붙었다고 할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표현을 ‘못 받아서’ 라고 했는데 ‘못 받았다’ 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will인지 shall인지 결국 그 표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평의원회에서 의도적으로 자문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과부 관료들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통화가 이루어졌거나 문안이 작성 되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근데 제가 못 받았다고 얘기했다든지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을 드리면, 결산이나 예산이나 상당히 바쁩니다. 근데 사실은 5월 7일 13차 평의원회 개최할 때

< 간서명 란 >

의 장



사실은 결산안을 올렸었고, 그 일주일 전에 교수회 대의원회에서 공표를 하셨습니다. 5월 7일에 대학평의원회가 개최되었고 그렇지만 거기서 이유가 있어서 중단을 결정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5월 12일에 다시 요청을 해서 12일에 교무회의에서 결산안 다루는 것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자문을 다시 또 요청했었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의장님이 출타중이셨고, 그래서 그런 일이 겹쳐진 겁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의원 이순일 : 불행히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는 건 교무회의가 대학평의원회의 중요한 기능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전례가 한번 남고 나면 앞으로 무슨 신뢰를 갖고 예산(안)이고 결산(안)이고 자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학교가 밝히기 싫거나 밝히기 곤란한 자료가 있으면 시간만 끌다가 기한이 되면 이사회 간다. 그런 전례가 이미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시간을 끈다는 표현은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던 얘기처럼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곤란합니다. 누가 여기서 시간을 일부러 끄니까?

의장 이일영 : 우리가 5월 15일자 평의원회에서 요청을 한 게 있었죠?

기획처장 김민구 : 네

의장 이일영 : 거기에 대한 사실은 만족할만한 답신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사장이 접수를 안 하겠다’ 했던 것에 대한 설명만 보냈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혹시 그러면 그날 평의원회를 개최하여서 (제가 표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결산안을 어쨌든 다루지 않으셨죠?

평의원 이순일 : 회의록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이해진 의원님도 발언을 하신 것과 같이 ‘냉각기가 필요하고 그 동안에 자료 같은 것을 더 보완해서 추후에 하자’ 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그때 혹시 그러면 다음 평의원회를 언제 한다고 회의를 잡으실 수 없으셨나요? 우리 결산안이 교과부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평의원 이순일 : 정확히 언제가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그걸 모르고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평의원 이순일 : 저희에게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처장 김병관 : 거기에 패널티가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패널티가 따르는 것도 기획처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까지 다 이미 파악을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여기 어딘가에 보내신 거 보면 패널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6월 1일 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평의원 이순일 : 13차 회의를 할 때는 몰랐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결산안 자문을 하시면서 이게 어떤 일정에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평의원 이순일 : 회의를 소집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일은 지금까지 보면 간사님께서 하셨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김병관 처장님, 지난번 평의원회 할 때 안 계셨거든요?

총무처장 김병관 :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반! 저 한 시간 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 무례한 회의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원활하게 회의를 하려면 목소리를 짝 깔고 해야 하는데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그날 제가 발언한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평의원회에서 예결산 부분은 교과부에 제출할 내용이 있으므로 시간을 여기 거나 그렇게 평의원회를 운영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패널티 부분도 있느냐고 제가 기획팀장한테 문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보완해서 결산 처리하자 다들 동의하셨고, 자료 보완이라는 부분은 사실 ‘언제까지 자료 보완해서 언제 우리가 다시 합시다’ 보다는 ‘자료 보완 되었으니까 빨리 평의원회 하자’ 이렇게 제안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기획처장 김민구 : 자료 보완이라는 말 자체가 펀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총무처장이 아까 얘기 했듯이 결국은 그 보완이 안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평의원 이해진 :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명확히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되었든 잘되었든 절차상의 문제가 평의원회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행선 달리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평의원회 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맞춰주셔야지.. 김민구 처장님이나 김병관 처장님이나 이중섭 처장님, 이사회 관련된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난 열심히 했다, 결과는 이렇다. 근데 저희

< 간서명 란 >

의 장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절차가 맞지 않는다 이 내용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해 봤자 결론 도출할 부분은 뭐니까? 평의회를 오늘 관두고 다음에 총장님을 만나자, 이사장님을 만나자, 이 얘기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저희들끼리 결론을 도출해서 필요하다면 대학측에서도 재단측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평의회 쪽에서는 재단측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 관계로 대학측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주는 내용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셔야지 너무 평행선으로 가면 솔직히 여기 오기가 싫습니다. 김처장님 저 바깥에서 볼 때 얼굴 붉히고 있는 그런 분 아니고, 이순일 교수님도 마찬가지로인데 서로 얼굴들 붉히고 있으시니까 보기도 좀 민망스럽고, 좀 차분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 하여튼 자꾸 되풀이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간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재단에 얘기를 해서 교과부에 우리 자문할 때까지 하지 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에 정식으로 항의해서 이것은 자문 없이 갔다 박병렬 주무관 당신의 interpretation이 맞다면 정식으로 답을 해라. 자문 없이도 교과부와 교과부에서도 받겠다는 그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 장관한테 청원을 내겠죠. 사립학교법을 고치든지 없이도 받아준다 하면 무엇 하러 우리가 평의회 모이겠느냐. 계속 되풀이 얘기하지만 저희는 사실 몇 시간씩 모여 앉아서 싸우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사실 제대 말년에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편안하게 지금 끝나야 할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몇 시간씩 얼굴을 붉히면서 이래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있는 절차대로 하고 필요 없으면 해산하고.. 왜 모여서 얼굴들 붉히고.. 사실은 저기 처장님들 우리하고 똑같은 신세 아니에요? 처장 옷 벗으면 평교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서로 이렇게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학교 잘못되자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잘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 평의회라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학교를 제대로 가게 하자는 그 의도 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해봐야 도움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shocking 했는데, 자문 없이 가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허탈해서.. 이 도대체가 뭐냐, 뭐하는 짓이냐.. 앞으로도 많이 모여야 할 텐데, 사실은 이 문제가 깔끔히 해결이 안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왜 모입니까?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이걸 깔끔히 해결하는 방법의 예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의장 이일영 : 잘못된 거니까 잘못대로 시정을 해야죠. 잘못된 걸 시인을 해

< 간서명 란 >

의 장



야 하고 ‘이전 절차상으로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걸 교정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총장이 분명히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과부에 자문을 해야죠. 자문을 해서 이것도 가능한거냐 너희들이 사립대학교 지원과에 박병렬이라는 사람과 했는데 정말 그 사람과 한 통화내용을 좀 알고 싶고, 내가 직접 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너 뭐라고 했냐고,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 이사회에서 자문 없이 그냥 통과시켰냐? 당신네들 회의록 없이 받으면 우리는 이걸 문제 삼을 거다. 개인이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은 개인이.. 이전 문제가 있는 것 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해결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거슬러 올라가서 저쪽에다가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자문하고 그리고 나서 이사회를 다시 열든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부와 직접 대응을 해야죠.

평의원 이해진 : 처장님, 일정이 늦으면 패널티가 있잖아요. 500만원?

기획처장 김민구 : 패널티에 관한 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최근에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게 금액이 딱 500만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지난번 그걸 여쭙봤거든요. 패널티가 있느냐? 큰 무리한 패널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분명히 제출기한을 어겼을 때 패널티가 있다고 하면, 평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자료가 제출 되었을 때도 패널티가 있냐 이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러니까 합법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자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어차피 시간에 쫓겨서 한 것으로 봐주시고 이번에 자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지금 논란의 요지는 다시 이걸 자문을 하자 이거에 대해선 평의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전철이 또 한번 있지 않게 하자, 재발방지를 어떤 식으로 할거냐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김민구 처장님께서 ‘그래,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자’ 이러면 저희는 전혀 이견이 없다 이거죠. 다만 이미 다 저질러 놓은걸 다시 돌아가서 하자는 얘기냐, 그럼 앞으로 저질러 놓은 건 할 수 없더라도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마련할까? 그 얘기가 지금 논쟁의 관점이 되어야죠.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교과부에 자문을 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자문을 요청했는데, 자문을 못 받았고 또 자문요청을 했는데

< 간서명 란 >

의 장



그래도 못 받았으면 결산(안)을 제출해라. 자문을 요청했는데 자문을 안 했으니깐 그냥 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의 견해차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순일 교수님이나 얘기하시는 건 자문을 했는데 이거 미비하니 보충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보충하는게 본부로서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경우는 그것은 의견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못한 거로 볼 거냐, 아직 자료를 아직 못 내서 못한 거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지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왜 자문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자문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걸 반영하든 안 하든 한번 듣게 되고 다음에 조심하게 되고,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또 자문이라는 게 저희가 따라갈 수도 있고, 이전 우리가 간과했지만 따라갈 수는 없겠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것입니다. 자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점이라는 건 뭐냐, 결국 펀드에 관한 자료를 내놔라 이걸 안 내놓으면 자문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총무에서는 거기는 공개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게 평행선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얘기하시면 또 뜨거운 논쟁밖에 될 수 없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이 시점에서 자문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을 해주시면 이번엔 넘어가고 다음번에 우리가 교무회의 전에 자문을 안 받고 지나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본적도 없고 안 그러려고 계속 노력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 견해차이거든요.

평의원 이순일 :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총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008년도 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학내사정으로 인하여 기일 내 관할청에 결산보고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받지 못하고 교무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무슨 학내사정 때문에 일을 못한 건가요? 학내사정이라고 하시니까 진짜 우리학교에 분규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신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지금 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펀드 문제에 대한 투명한 정보의 공개입니다. 결산 내역 중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선 우리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과연 보장할 수 있느냐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의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학교정보를 공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투명한 대학운영을 해라. 결과적으로 평의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금은

< 간서명 란 >

의 장



영에 관한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금운영 현황을 신문에까지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언론에까지도 다 주실 자료인데, 그것을 평의회에서 알고 가자는데 왜 그걸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며칠 상간으로 지나보니까 조선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다 났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 공개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도 남은 부분을 공개해야 대학평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사립대학의 정보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해라!’ 하는 것이 대학평의회가 만들어진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견해차이가 아닙니다.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러시겠지만, 그 한계를 넘으셔야 하는 겁니다. 평의회가 펀드투자에 대한 질문을 안 했으면 이런 정보가 공개 되겠습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지금 그 말씀도 화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에 남겨놓으면 마치 우리가 평의회에서 요구한 정당한 자료요청을 거부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곧 뒤돌아서 내놓을 것을 왜 그것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무엇을 요청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평의원 이순일 : 회의록에 있습니다. 회의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며칠 있다가 신문에 났더라. 그렇게 공개할 것을 그때 우리에게 줬으면 됐지 않았겠느냐? 그럼 신문에 난 거 보니까 필요하신 정보가 거기에 다 있었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제가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낭독하다). 세계일보에 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우리가 학교경영의 투명성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무제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냐, 평의회에서 학교에 대해서 무제한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절대 지존의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 이일영 : 이렇게 공방을 계속하면 회의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이러다 말 것 같은데 평의회가 쉽지 않군요. 쉽지 않은 모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평의원 이해진 : 처장님 말씀하신거 제가 동의를 해요.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얼마큼 밑바닥까지 보이는 게 투명성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들 오셨는데 제가 몇 번 회의를 참여하다 보니까, 평의회 회의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런 감이 좀 있어요. 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내년 되면 세분 중 한 분이 평의회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이 교수님!

< 간서명란 >

의 장





제 생각도 김처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느 정도 꼬치꼬치 감사기관 마냥 그런 부분을 요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납득할만한 수준입니다. 물론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문에 어떻게 나온 지는 못 봤습니다. 그 정도 자료라면 아마 저희한테도 오픈 될 수 있을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얘기가 나오다 보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방어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공격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매번 평의원회 할 때 마다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를 맞추시죠?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결국 공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명확한 숫자를 이사회에서는 다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가 사실은 먼저 지적을 하신 거죠. ‘293억의 투자가 있다.’ 그것도 감사께서는 ‘수익증권 등 위험자산에 293억을 투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산 시점일 겁니다. 처장께서는 ‘기금에서 투자된 부분은 233억이고 차액 60억은 채권 및 채권형 투자상품이다’라고 발언 하셨습니다. 결국 숫자를 말씀하신 거죠. 덧붙여 ‘기금으로 투자한 펀드의 평가액은 현재 30% 정도의 손실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도만 13차 회의에서 말해 주셨어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 이런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더 묻는 것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느냐, 지금까지 투자된 펀드의 총액은 얼마나’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감사께서 그대로 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 평의원회가 한 일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대학에서 지금까지 기금과 유동자금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금과 유동자금을 분리해서 운영해라. 기금의 손익과 유동자금의 손익이 분리되어 표기되어야 한다.’ 이 모두 우리가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기금 외 다른 자금이 들어갔으면 별도로 표기해라’, 심지어 ‘기금도 분리 관리하고,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해라’와 같이 결국 우리가 드린 얘기를 감사도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한 건데, ‘평의원회 기능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다’라며, 이렇게 관련 자료를 안 밝히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국 펀드액수와 손실 비율을 다 말씀하시고, 결국 이사회 회의록에 다 나타나는 건데, 왜 그걸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땐 수용을 안 하셨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맨 처음 펀드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투자의 규모는 어디까지 올라갔었고, 누가 펀드종목을 결정했는지

< 간서명 란 >

의 장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펀드에서 나온 수익이 얼마인지 교무회의에서는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결국 저희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왜 누적된 펀드수익이 얼마인지 평의회에는 말씀을 못해주시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어떻게 해서 펀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최대 투자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지금까지 이익이 남았으면 얼마나 되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손실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결국 감사도 다 동의하시는 문제들이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실리는 내용들이데, 이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이 평의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결산자문 아닌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게 자문해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됩니다.

의장 이일영 : 사실은 평의회에 적들이 모여서 앉아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건 아니잖아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게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문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다만 정보의 공개를 어디까지 하느냐.. 물론 이게 happen to be.. 감사가 그렇게 주도해서 공개하는 것은 논란이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된 거죠. 그거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일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알고 있고 결코 평의회를 그렇게 지금 nervous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개에 있어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자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의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순 없는데, '적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되어버립니다.

의장 이일영 : 이게 말하는 게 너무 protective 하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protective 한 게 아니라, 저로서는 지금까지 기획처장 앞으로 평의회에서 온 공문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할 겁니까? 그냥 앉아서 가만히 감수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문명인들답게..

의장 이일영 : 알겠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의장님이 거기서 여기 뭐.. 처장들이 들어와서 마치 적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회의록 읽으면 정말 그런 것처럼 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이일영 : 회의록은 사담 비슷한 건 뺏니다. 거기다가 적이라고 쓰겠습니까? 다 슬직해지자고요. 난 처장님들이 학생들이 여기 있어서 더 nervous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제 생각에는 지금 평의회에서 본부 어느 부서에다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할 때,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요청에 대해 각 본부 부서들이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사실 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의회 입장에서는 거기에 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 달라면 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어떤 조직에서든 통용될 수 있는 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대학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물이 있어야 하는데, 저도 사실 어디까지가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저도 여기서 명쾌하게 말씀 드릴만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제한으로 access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본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 그건 쌍방이 지켜야 할 물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어디쯤에선가 늘 아마 갈등하면서 접점이 찾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계속 평의회가 대학 본부와 그런 면에서 갈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총무처에 대해서 만일에 이런것 저런것을 요청하신다면 처장인 제가 판단해서 제 책임하에 release하는 정도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씀 드린다면 그건 제가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것이 아닌 한도 안에서는 드릴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 좋은데, 다 좋고요. 이순일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다 공개되는, 예를 들어 이사회 회의록에 나올 정도의 information이 우리에게 차단된다고 하면 그건 좀 우스운 거 아니냐 이거죠. 사실 초창기에 그거 우리에게 안 줬잖아요.

총무처장 김병관 : 예.

의장 이일영 : 결국은 나중에 뽑아보니까 다 나왔단 얘기입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그것도 제가 좀 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을 안 하면 이상해지니까요.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학교 커뮤니티, 꼭 평의회 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평의회에 자료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학교 커뮤니티를 향해서 드리는 의미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

< 간서명 란 >

의 장



숨드릴 수도 있겠죠. 평의회에 드리면서 사실 이전 학교의 기밀 정보이니 off the record로 대외비로 해주십시오. 그런 조건하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동의하시면 드릴 수 있고 동의 안하시면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교 경영과 관련된 수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로 중 하나가 평의회고, 다른 하나가 학생회고, 또 다른 하나가 이사회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access에 대한 권한으로 따지면 이사회가 제일 많은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이사회가 사실상 학교의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도적으로 이사회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특히 부서가 여기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책판단을 해서 ‘그 정보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지 제가 생각을 해봐야 할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학교 커뮤니티가 어느 부서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보시는 것도 사실은 그게 release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걸 마치 평의회와 이사회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냐, 왜 우리한테는 안주면서 이사회는 줬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마치 학교에 대고 ‘너 평의회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닌가. 만일에 저희가 비슷한 자료를 학생회 측에 먼저 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똑같은 논리로 왜 학생회에 줄 것을 우리한테 안주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의회를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도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대학평의회가 만들어졌는가, 사립학교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구성원의 대표성을 말씀하시는데, 평의회가 바로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교수회대표, 직원회대표, 학생회대표, 동문회대표, 지역대표, 정확하게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평의회는 일종의 의회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저희가 입법권은 없지만 최소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어떤 원칙하에서 하는지, 정확한 정보 같은 게 공개되는지, 특히 ‘국민의 대표가 없으면 세금을 매기지도 못하고 내지도 않는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자꾸 대학평의회를 총장님 밑에 있는 무슨 위원회로 생각을 하시면 갈등이 생길 것 입니다. 바로 대학평의회는 대학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다른 여러 갈래로 구성원들의 대표가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협의회가 기능을 할 수도 있고 학생회가 기

< 간서명 란 >

의 장



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평의위원회가 법제화 된 것은 가능하면 제도권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언론을 트고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저는 지금 이순일 평의원님 말씀하신 거 상당 부분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회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은 혼자서 하시는 말씀이고 개인 의견에 불과하고, 또 이것을 누가 총장 산하에 있는 일개 위원회 정도로 치부해서 무력화한다는 것인지... 아까 며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의원 이순일 : 잠깐만요. 저 혼자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거수로 평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해볼까요?

총무처장 김병관 : 의회라고 생각하신다는 부분은 혼자만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총장의 산하 위원회 정도로 격하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런 식의 발언은 곤란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본적 없고요, 총장님 산하 위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전 하여튼 평의위원회가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큰 어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정말 활성화되어 학교 안에서 자리 잡아야 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기서 평의위원회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의원 이해진 : 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현명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 공개만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평의원이 한 두 분 계시는 게 아니고 각 대표들로 열두 명인가요?

의장 이일영 : 열세명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열세명 있거든요. 그럼 평의원들끼리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반대의견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기관인 것 같다 국회에서는 뭐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지, 딱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뭐다 아니면 감시기구로서의 뭐다 이런 내용은 서로 느끼는 것 마다 다릅니다. 그거야말로 김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이사회는 주는데 평의위원회는 안주고.. 저희는 똑같이 요구한 적도 없을 겁니다. 또 여기 계신 평의원분들이 이사회 그러면 가장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기구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마치 평의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힘겨루기 하듯이 말씀 주시

< 간서명 란 >

의 장



면 그런 거야 말로 의사록에서 빼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근데 감사는요 학교 안에 있는 각 부서들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예를 들어 총무처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 자료는 감사한테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진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달라면 쥐야 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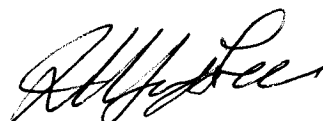
평의원 이해진 :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 이해 못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다 이거죠. 마치 여기서 달라면 안주고 거기서 달라면 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요구하는 거라 말씀해주시면 의사록에서 지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장 이일영 : 계속 결론이 날 성격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는 거고 우리 처장님들께서도 인정을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얼 할 수 있는지, 만일의 경우에 지금이라도 자문을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이고, 자문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좀 더 규명을 해야겠고, 이미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나간 이후에도 우리가 자문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문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차피 자문자료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만일의 경우 지금 이후라도 결산안에 대해서 자문을 다시 해야 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해야 하는 당위성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명확하게 하고선 하더라도 해야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자문은 항상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하고 결산하고 반복되는 거고, 자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 자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뭐가 더 필요하신지를 다시 한 번.. 지금 이미 이사회에서 발표된 게 충분하시면 다음 번 회의에 자문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평의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자체감사를 평의원 중에 한 분을 모시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의 공개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었으니까 잘될 거라고 보고 자문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평의원회에서 처장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 간서명 란 >

의 장



분들께 말씀 드린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급적 초반부에 피드백이 된 것만 말씀 드리고 물러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걸 얘기해 주시면 다음 평의회에 결산자문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필요한 게 없으면 저희는 물러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일영 : 네 좋습니다. 말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계속 공전되는 그런 에너지 쓰는 것은 끝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처장님, 아까 이팀장한테 말씀 드렸는데 36페이지 보면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총장님이 대학평의회 의장 앞으로 보냈는데, 제목을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리 해주시면 좋겠고, 24페이지에 '대학평의회 발신공문에 대한 회신' 이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평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보냈길래 이사장께서 총장님 앞으로 이런 내용을 보낸거죠?

평의원 이순일 : 그건 12차 평의회가 끝나고 저희가 resolution을 했던 두 가지를 보낸 겁니다. 몇 일자 공문인가요? 두 가지 resolution 문제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4월 29일자. 4월 29일자에 대한 것들을 지난번에 중단 하셨을 때, 재단에서 접수도 안했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시켰고, 그거에 대한 회신을 이사장님은 총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신을 보내주신 거죠.

평의원 이해진 : 기획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사항이 어떻게 보면 항상 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재단을 직접적으로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역할이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왕 힘드신 김에 이런 부분이 아주대학교 총장 앞으로 재단에서 내용이 왔으면, 이 내용 그대로 저희한테 전달할 내용이 아니고 여기 보면 취지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완충효과를 중간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이해진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24페이지에 있는걸 보면 저희 나름대로 해석해서 다시 보내줘라?

평의원 이해진 : 아니 해석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사장이 총장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여과 없이 평의회에 지금 말씀하시듯이 동문, 교수님들, 학생, 대외기관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죄송합니다만은 테크니컬하게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바로 평의회한테 발송을 하면 좋은데, 재단에서 그렇게 보내질 않죠. 형식을 총장 앞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구를 받은 건 뭐냐, 회신을 요구

< 간서명 란 >

의 장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직접적인 회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저희도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런 부분을 처장님이 고민 좀 하셔가지고..

기획처장 김민구 : 예, 알겠습니다.

평의원 오상탁 : 이해진 의원님 36페이지 공문 말씀하시면서 대외적으로 비밀유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38페이지 자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거죠?

평의원 이해진 : 이거 이외에도..

평의원 오상탁 :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학평의원회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첨부자료들이 회의록에 다 올라와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부총장님 관련한 성명서 라든지 모든 것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금운용현황은 공문상으로 형식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대외비가 되어야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대외비 자료로는 대외비 도장 찍어주십시오

평의원 오상탁 : 파일로도 보내고 그러지 않나요?

평의원 이순일 : 이미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233억이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론 보도를 보면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펀드에도 투자했다는 게 이미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근데 이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대외비로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순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은 사실 제가 오래 전부터 교내 여러 회의에서 다 말씀 드리고 다 냈던 거고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 드린바 있고 뭐 그런 건데.. 다만 여기 이 자료에는 지금 디테일들이 나와 있죠. 수치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41페이지에 있는 자금운용의 구성비 같은 이런 것도 처음이고요, 42페이지 것도 처음이고요, 43페이지 것도 처음이고요, 44페이지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며 벌써.. 45페이지 이하의 자금운용지침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의원회에 와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리는 과정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학교 기밀사항이니 평의원들 내부에서만 정말 대외비로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게 유지가 됩니까?

평의원 이순일 : 글썽 어떤 걸 비밀로 정의할거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정보 중에 우리가 공유해서 안 되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해진 : 서로 주의할건 주의하자는 건데..

평의원 이순일 :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꼭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직도 펀드 건은 좀 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부터 계속 부탁을 드리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다 털고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전체 히스토리를 밝히면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펀드라는걸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운용한 기금 규모는 도대체 얼마고, 거기서 창출된 이익은 얼마고, 그 이익은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하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평의원 이해진 :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 내에서..

의장 이일영 : 네, 근데 소위 어디까지 밝히고 안 밝히고를 그냥 처장님이 자기 주관적으로 결정을 하신다고는 못해가지고.. 하여튼 모.. 좋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하실 거 있어요? 우리는 남을 거고 처장님들한테..

평의원 최인규 : 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총무처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장 이일영 : 처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려면 하시고..

총무처장 김병관 : 그것은 의장님께 결정을 의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인규 평의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학생회 차원에서 저한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제가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할 일이지만, 최인규 평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 달리 학교 안에 있고 이를 걸러 한번씩 보잖아요. 저한테 지금 학생회 대표들 이끌고 몇 번씩 찾아오셨지요? 한번도 안 만난 적 없고, 거절한 적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해 주십시오. 최인규 평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학생회장 자격으로 저한테 와도 되고..

평의원 최인규 : 저는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고 물어볼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평의원회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의장 이일영 : 바로 얘기하세요. 이왕 오셨는데 시간 많이 끌었는데 조금 더 끌죠. 너무 길게 하지는 말고..

평의원 최인규 : 조금 욕심이 드는 게 42쪽에 보시면 A, B, C, D, E, F 증권사, 정말 다 다른 회사일까 라는 호기심에서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처음 본 친구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던 말입니다. 구체적 바탕 되는 자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학생들 레포트 쓰듯 만들 수 있는 자료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학생회 안에서는.. 그래서 A증권사랑 F증권사 같은 종목, 그리고 C증권사랑 D증권사 같은 종목, 한 증권사를 종목이

< 간서명 란 >

의 장



다르단 걸로 나뉜 거 아니냐, 한 증권사에 100억이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공개된 이 자료가 오히려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런 고민이 들었고, 두 번째는 공개 문제에서 대외적으로 비밀 유지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9쪽에 보면 학내에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한다 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들킨걸 알면 모가 불신과 오해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대외비라 해도 공개할거니까 형식상으로 쓰신 건지 아니면 진짜 학생들이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평의원 김찬영 : 총무처장님, 지금 언론에 학교 펀드 문제가 보도가 많이 되어서요. 저도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와있는 내용에 총학생회 입장이 대다수를 이루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아주대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기사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총무처에서 직접 언론에다가 취재요청에 응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신 겁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네, 그렇습니다. 그 대목은 자세히 경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있습니까?

평의원 김찬영 : 네, 몇 가지 건의사항이 또 있는데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듣고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우선 첫 번째, 순서대로 답변 드리면요. 42페이지에 있는 예치기관에 대한 얘기인데, 예치기관 A, B, C, D, E, F에서 A는 ‘아주증권사’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언론기관에 경기도소재 A대학, B대학 해가지고 A대학이 나왔는데, A대학이 아주대학이라고 막 우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대자보 만들고 유인물 만들어서 학생들 강의실에서 다 나눠주고 그래서 A대학이 경기도 아주대학이라는 식으로 오도하더라는 거죠. A대학, B대학으로 되어있는 자료를 놓고 A를 아주대학교라고 오도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평의원 최인규 : A대학이 아주대학교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서를..

총무처장 김병관 : A는 ‘아주증권사’ 아닙니다. A, B, C, D, E, F 6개 증권사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평의원회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학내기구에서 대학본부에 무언가 요청할 때 무제한으로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대학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 간서명 란 >

의 장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얘기 못하는 건 얘기 못한다고 하지 거짓 자료를 만들어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A증권사, F증권사 같은 증권사인데 이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학교를 못 믿어도 정도 문제지.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얘기 못할 건 얘기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 수 16개 맞습니다. 대계 10억 내지 20억 단위로 쪼개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총액 233억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paragraph에 ‘이러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거 상당부분 학생회를 겨냥해서 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 입장에서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했었죠. 물론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판단했던 정보공개 당위성의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그때 약 50명 가까운 학생 대표들을 놓고 3시간 반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 말 중에서 단어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몇 차례나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얘기한 건 아무것도, 아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되어있고 똑같은 얘기를 더 의혹이 부풀려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론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학생들을 상대로 정말 이렇게 간담회 하고 정보공개하고 설득하고 내가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거다 라고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하는 게 소용이 있는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몇 차례..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나한테 사석에서 그런 경위에 대해서 몇 차례 들었습니까?

평의원 최인규 : 두 번입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학생회 대표들과 왔을 때 들었지, 그 다음에 학생회 대표 약 50명 정도와 간담회 세시간 반 했지,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했잖아요. 학생회에서 요구하는 상세내역 빼고는 다 얘기했어요. 돈은 200억+@가 투자가 되어있다. 그리고 이진 현재 조금 물려있다. 경위가 이렇게 된거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그 내용은요 12차 평의원회 때 들었던 내용 대부분이었고요. 확실히 간담회 요청했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을 요구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투자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유만 설명하겠다, 공개를 못하는 이유. 이러이러해서 공개를 못하는 이유..’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도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 간서명 란 >

의 장



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이런 투자는 했구나’ 이해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의 보도자료를 드릴수도 있어요. 분명히 어제 했고, 요런 요런 내용을 했다, 그 내용은 대학평의회 내용을 따서 했어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쓰기 좋은 기사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이런 내용이 공개되었다면 목요일 날 과연 기자회견을 했을까? 안 했을 겁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그래서 학생회에서 기자회견을 지역언론 기자들을 불러서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나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익히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의혹인 것처럼 상당부분 부풀려서 했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자료이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학교 관계자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느냐 하길래 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했죠. 하여튼 학교입장에서 스토리를 설명을 했죠. 사실은 그것입니다. 학교 관계자라고 따옴표 되어서 나간 건 저고요. 특별한 내용이 따옴표 되어서 나간 건 아닙니다만.

평의원 김찬영 : 평의회 나온 내용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건의드릴 사항도 있고요, 제가 좀 짚어볼 사항도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짧게 하세요.

평의원 김찬영 :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 펀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니지만 지금 언론에 나온 이상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대외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미 공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가십거리에 더 의혹이 부풀려서 나가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인 공개와 해명이 필요한데 학교본부차원에서 대외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공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좀 듣고 싶고요. 이거부터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하여튼 짧게 하십시오. 우리 아젠다가 또 있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이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틀림없이 여러 언론에서 아주대학교 케이스를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대학들은 다 지금 펀드에 물려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물려있습니다. 그 금액의 과다는 우리가 대충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돈이 많은 대학은 많이 물려있고, 돈이 없는 대학은 적게 물려있고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모 대학은 약 2천억원이 물려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대학이 다 물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 간서명 란 >

의 장



어느 대학이나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이 죽어라 정보를 안 내놓고 있죠. 제 짐작하기엔 다른 대학도 우리 대학과 똑 같은 속사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된 거냐 우리도 물려있는 거 아니냐 이려고 있을 거고, 학교당국에선 우린 못 내놓는다 이려고 있을 것이고, 저희는 처음으로 어쨌든 구체적인 수치들이 일부 나간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정도의 내역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은 나간 겁니다. 그럼 언론에서는 그걸 다루죠.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공개하면 전국적으로 가장 투명한 대학의 모범으로 칭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이번에 언론들은 전부 아주 대학이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 관여 되어있는 사람들은 대개 압니다. 모든 대학이 똑 같은 사정이 있다는 걸.. 어떤 의미에선 아주대학은 돈이 없으니까 물려있는 돈의 절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면 ‘아주 대학이 정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그럼 누가 우리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겠습니까? 홍보효과로 따지면 이걸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도 이런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손해 본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할 거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언론에서 좀 호의적으로 우리 케이스를 다루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jab 두 대 맞았는데 KO펀치는 안 맞아야지 피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판단일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저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평의원 이순일 :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큰 견해차를 느낍니다. 교내 구성원들이 학교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으면,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갇아먹죠. 학교가 이런 걸 투명하게 나르면 누가 묻더라도 떳떳하게 ‘아주대학교는 투명한 학교다’ 라는 얘기를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이 어떤지 다 압니다. ‘아주대학교 평의회에서 이런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납득할 만큼 정보 공개가 됐다’ 는 소식을 보고, 그때 과연 아주대학교를 나쁜 대학이라고 생각할까요? 글썄 우리가 사로 다른 나라에 산다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또 그 말씀도 기록에 남으면, 마치 제가 정보공개와 관련

< 간서명 란 >

의 장



해서 하고 있는 고민이 저희가 떳떳하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읽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의장 이일영 : 이것도 결론이 안 날 얘기인데, 다른 얘기 질문 있습니까?

평의원 김찬영 : 네

의장 이일영 : 짧게 하세요.

평의원 김찬영 : 주식시장이 회복되면 환매를 하시고, 그때 공개를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시장이 언제 회복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개를 저희는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첫 번째 말씀 드린 건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와 해명이 필요하다면 방법이 있으신가를 여쭙본 거고, 제 개인 주장은 적극적인 공개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여기 사학재무회계에 관한 특례규칙 제33조에 취득가액이 1/2 손실 이하면 손실 난 경우에만 반드시 결산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규칙상으로 공문서에 반영을 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알 권리마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같이, 주식시장이 회복되면 공개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그 예측 불가능한 시점을 잡아서 공개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이 부분의 규칙의 해석에 관해서 공문서에 반영만 할 필요가 없을 뿐 구성원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42페이지 보시면요, 위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요 투자원금 기준으로 23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별표 해서 주석 달려있는 부분을 보시면 2009년 5월말 현재 27.7% 평가손상입니다. 2009년 2월말 '08회계년도 결산 기준시점에서는 43.9% 평가손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절대액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있다는 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A증권사 무슨 상품에 10억이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얼마다, B증권사 무슨 상품에 10억이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얼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를 밝히려는 거죠?

평의원 오상탁 :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 이것은 대외비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공개가 된 것이지만 학생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얘기입니까?

평의원 김찬영 : 아니요. 처장님 답변 듣고 제가 또 다시 말씀을..

< 간서명 란 >

의 장



총무처장 김병관 : 어쨌든 학생들은 구체적인 상세내역을..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을 달라는 건가 보다.

평의원 최인규 : 투자내역을 달라는..

총무처장 김병관 : 투자내역. 그것을 달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받았을 때 무엇을..

의장 이일영 : 투자내역이라는게 증권사 이름을 달라는 거예요?

평의원 최인규 : 네, 종목 이름과..

총무처장 김병관 : 그게 왜 필요합니까?

평의원 이순일 : 못 주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무처장 김병관 :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A, B, C 등 해서 6개 증권사 건만 해도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는 두 개인데 그걸 6개로 나눠서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학교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 구성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건데, 만약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같이 앉아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건 그 동안 최인규 평의원은 학생회장 자격으로 나한테 그 얘기를 수차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계속 못 믿고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서 A증권사와 B증권사가 사실 같은 건데 자료상에서 나눠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평의원 최인규 : 죄송합니다. 호기심에서 이야기 했다고 전제를 했고요. 사실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처장님이 200억 수준의 펀드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만 끝이끝대로 A대학교는 400억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MBN 뉴스보면 의혹이 안 생길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꾸준히 명확히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서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총무처장 김병관 : 내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거짓말 있어요? 지나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더라, 그런 것 있습니까?

평의원 최인규 :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이제까지는.. 근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바탕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탕자료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대외비니까 인정해라 이러면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공개되는 것은 제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의장 이일영 :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마저 하세요.

평의원 김찬영 : 증권사가 어디다, 종목이 무엇이다, 이름을 알고 싶은 것

< 간서명 란 >

의 장



보다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투자 당시에 상황분석과 지표가 나와 있을 거 아십니까? 우리학교가 여기 말씀하셨듯이, 정책상 안전성이냐 아니면 위험성 감수하고 본격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결정하실 때 구성원들이 다같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내용들을 알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주가가 대 폭락을 하면 손쓸 방법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 종목들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모냐면 투자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같이 분석할 수 있다면 저희가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처장님, 이 내용도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게 30~40%의 원금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처럼 난리 나는가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조치사항이 뭐냐, 개선사항이 뭐냐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어디서 무엇을 넣었다 이것은 제 관심사는 아니고, 이 정도라면 Risk Management가 안되었다는 거거든요. Risk Management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치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기획처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다음 번 평의원회 할 때 동문회 일원으로 말씀 드리는건데 이번에 조선일보 아시아권 대학평가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쪽 보면서 동문회 한 사람으로, 아주 가족의 구성원 일원으로 도대체 아주대학교의 핵심역량이 어디 가서 있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냐? 제가 동문회장 할 때 오명 총장님이셨는데 그때부터 국제화, 세계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길래 조선일보에서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이 정도로 나오느냐. 또 우리 동문들은 IT분야는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IT는 순위도 안보여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대우학원에서 보낸 내용에서 1번에 보면 발전계획에 대한 안이 평의원회 사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관련되어 기획팀에서 아시아권 대학평가 한 결과를 보고 향후 대학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비전과 발전계획이 어떤가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물론 기금이나 투명성도 그런 것의 일환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저 그거 보니 쪽팔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음 번 평의원회 의제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이일영 : 어차피 회의록에서 지적한 부분이 다음 안전으로 올라갈 거니까 다음 안전으로 잡겠습니다. 혹시 처장님들께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평의원 최인규 : 첫 번째 대책 부분, 조치 이런 부분은 대답이 좀 필요할 것

< 간서명 란 >

의 장





같은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펀드 손실액 때문에 우리 내년에 등록금 오르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것 때문에 덜 받게 되진 않을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현재에서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기다린다 라고 하셨는데 신문 같은데 보면 8~9월에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 그런 얘기도 사실 들리거든요. 이런 얘기 들리면 불안한거죠.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지금 현재 저희가 손실이 5월말 현재는 27.7%인데 절대 금액으로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 환매를 해서 회수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시스템은 저희도 분명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의 자금 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리 지침을 제정을 해놓은 바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지침 및 근거가 되고요, 그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평의원 이순일 : 이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아주대학이 아시아권 대학에서 순위가 그거 밖에 안 되느냐?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 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펀드가 문제입니다. 이 정도 손실이 생기면, 결국 이게 기회비용인 겁니다. 그 60억을 안 쓰면서, '3년 정도 그 돈은 없어도 되는 거다' 라고 한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짜리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리소스가 있으니까 '3년 후에 얼마 쓸거고 5년 후에 얼마 쓸거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통장이 비어있으니, 발전계획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돈을 갖고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큰 문제가 되겠죠. 언젠가는 빈 통장이 다시 채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발전에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실수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몰라서 다시 반복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펀드총액이 얼마인가 얘기가 되어야 하고, 이익이 얼마 났으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분명히 교무회의 때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펀드수익 액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평의원회가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같이 제시하고 검토하는 것이며, 발전을 기획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펀드투자 및 기금손실에 대해 모르는 가운데서, 저희가 과연 어떤

< 간서명 란 >

의 장



의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젠 제 Curiosity 인데, 모든 펀드 투자 과정에서 최홍 이사가 관련이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그 것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제가 어떤 경우에는 저를 믿어주시시오 라고까지 말씀 드렸는데.. 여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드리자면, 재단 이사 중의 한 분입니다. 그분의 현직이 ING라는 보험 회사에서 (자회사인지 계열사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ING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 입니다. 그 분이 자산운용회사의 대표이신데, 그 분이 우리학교 재단의 이사 중에 한 분이요 하시니까, 자금 운용과정에 재단이 그 분을 통해서 관여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재단은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를 포함해서 자금운용에 어떤 형태로 든 관련이 없습니다. 재단은 말하자면 나중에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아는 그런 것이고 최홍 이사라는 분은 사실은 저하고는 한번 수인사 하고 명함 교환한 (이사회 장소에서) 그런 정도 밖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 드리면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 분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학교 안의 여러 회의장소에서 본인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만일 그 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거고요. 그 부분은 의장님께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 처장님이 사실은 아시고 계신데, 이 분이 개방이사로 들어올 때 우리가 다 반대했어요. 반대 이유로 우리 학교 투자가 천억 대인데, 이게 이영현 이사 얘기라고.. 천억 대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자꾸 그런 curiosity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그때 다른 candidate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제기고 이 사람을 넣을 때 이영현 이사가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 이 사람은 우리 이사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왜 필요하냐면 ING회장이고 우리가 천억 대의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는 전혀 관계를 안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깨끗한 것이고.. 이영현 이사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사를 제기고 이 사람을 넣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죄송하지만, 최홍 이사가 비교적 최근에 이사가 된 사람이고 이미 저희가 투자가 상당히 되어있을 때라고 생각이 들고, 이사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최홍 이사가 언제 이사로..?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이일영 : 최홍 이사가 2007년..

총무처장 김병관 : 제가 이렇게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ABCDEF 증권사 있잖아요. 여기에 I 자로 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자, 그러면 처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어요?

평의원 최인규 : 한 개 더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의장 이일영 : 짧게해요.

평의원 최인규 : 만약에 처장님들 나가시면 결산자문 할건지 말건 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결산자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연구학생경비가 5%밖에 안되지만 미집행 되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미집행된게 특수대학원이지 학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지난번 등록금 협의할 때 다 얘기했었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그래서 세목 같은걸 요청할 수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이게 대부분 특수대학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평의원 최인규 :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문을 했을 때 반영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게 궁금해서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반영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죠. 왜 이것은 반영을 했다, 이것은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의장 이일영 : 네. 이상입니까?

(처장님 퇴장)

의장 이일영 : 우리 다음에 자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언제 하나 그걸 우리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자문 전에 약속이나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일영 : 약속?

평의원 최인규 : 마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추경이 되었던 다음 예산안이 되었던 예산안을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학평의원회의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때 또 넘겨버린다고 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기고, 또 얼굴 붉히며...

의장 이일영 :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게 있느냐?

평의원 최인규 : 재발 방지에 대한 이사장님의 약속이나 서면약속!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명시적인 걸 대학평의원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고,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주대 발전을 위해서 패널티 먹는 걸 좋아하는 평의원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펀드문제 같은 건 결산 자문하기 전에 반드시 봤

< 간서명 란 >

의 장



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것인 데 이사회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면 자문에 있어서도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서면 약속을 받아야지만 자문이.. 흔히 말하는 성심 성의껏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의장 이일영 : 네 좋습니다. 다음 자문을 위한 평의회회를 열기 전에 이러한 약속을 받고 하자. 이러한 재발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자문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이죠?

평의원 최인규 : 네.

의장 이일영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평의원 김관균 : 최인규 평의원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여러 가지 쌍방의 컨디션이 있었고,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2008년도 결산에서 평의회회 자문 없이 교과부에 올라간 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대안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6월 1일까지 데드라인을 안 지키면 패널티를 먹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 평의회회에서 얼마만큼 알려졌는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향후에 결산안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는요 기획처에서도 나름대로의 기획처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면 이게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도 한번 받아보고, 또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안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재단측에도 절차상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하기 위해서, 공문 있지 않습니까 문서화 시켜 알려주면서 향후에 어떠한 대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보완을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같은 문제가 생겼던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쪽에서 안을 제시하고 해가지고 다음 자문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서로간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짚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 보충설명 하신거죠?

평의원 김관균 : 네

의장 이일영 : 다른 의견 있습니까?

평의원 오상탁 : 제가 최인규 의원님한테 총학생회장 자격으로 제가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이일영 : 네

평의원 오상탁 : 이번에 펀드 관련해서 기자회견 한 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28일 목요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금요일날 지방지에 기사가 났었죠? 그 다음주 이번 주 초에 중앙지, 연합뉴스 이런 쪽으로 기사가 (며 아까 세계일보도 이야기 하셨지만) 많이 났었는데, 아까 이순일 교수님 말씀이 우리 학교가 투명한 것을 많이 공개를 해주면 투명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극히 일부 사람들 대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보곤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세계일보나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을 어떻게 달았냐면 아주대 2백억여원 펀드 투자손실.. 며 이렇게 달았던 말이죠. 제목만 봤을 땐 자칫하면 200억 이상을 아주대학교에서 손실을 봤다는 식으로 자칫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해서 세계일보나 연합뉴스에 항의를 해서 '고쳐라, 제목 잘못되었다. 독자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다' 해서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200억여원 투자해서 일부 손실 이런 식으로 고쳐지기도 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럼, 두 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 나가는 게 되잖아요.

평의원 오상탁 : 아니, 인터넷 상에서 고친거죠. 두 번 나간게 아닙니다.

평의원 김찬영 : 그게 있잖습니까.. 자료가 진작에 왔다면 총학생회에서 애초에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지 기자회견을 하지도 않았습시다.

평의원 오상탁 :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연세대 한양대나 서울에 있는 우수대학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총학생회가 모르고 기자회견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일단 봤을 때는 학교의 여러 곳에서 학교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많단 말이죠. 저는 이번 기자회견 건으로 해서 과연 총학생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과연 아까 이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개를 더 깨끗하게 한다면 과연 우리학교에 득이 될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인규 의원님한테 공개를 했는데 지금 와서 봤을 때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발언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인규 회장이 답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영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하신 말씀은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왜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

< 간서명 란 >

의 장



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신 얘기는 누군가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옳지 못한 일을 했다고 지적하는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창피하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의원 오상탁 :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의원 이순일 : 장기적으로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도 공표가 안 되는데, 아주대학교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개되는 겁니다.

평의원 오상탁 : 거긴 평의원회가 없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네. 우리와 같은 평의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오상탁 : 투자를 한 대학에서는 평의원회가 없나 보죠.

평의원 이순일 :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저희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대학교는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대학평의원으로 와 계신거지 학교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의원 오상탁 : 아니 저는 제 개인자격으로, 분명 서두에 말했습니다. 학생회장으로 질문을 하겠다 했지 그 이외의 것은 없다 말이죠. 그 이야기는 하시면 안되지요.

평의원 최인규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결론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정을 좀 해드리면, 서울 어디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안 하는데 이걸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평의원 오상탁 : 무엇을 잘못 알고?

평의원 최인규 : 서울에 있는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 학교에서는 했느냐 했을 때, 제가 지금 뽑아 놓은 것은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고려대에서 했던 것.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손익 여부를 숨기는 것을 문제라면서, 열 개 이상의 대학 총학생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이 세 개 대학의 총학생회에서 이미 학기 초 2~3월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밝혔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 사립대학교 전국의 열 몇 개 대학교에서 주식으로 한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났고요. 좀 잘 아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의원 오상탁 : 그래서 그 결과를 묻고 싶은 거예요.

평의원 최인규 :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잘했다고

< 간서명 란 >

의 장



생각하고 우리 대학이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김찬영 : 이거는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로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오상탁 :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하겠지!

평의원 김찬영 :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전에 드렸던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게 진작부터 이런 자료들이 공개가, 공유가 좀 되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것 같거든요.

평의원 오상탁 : 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끌었어? 공개를 하라는 시점하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는 않았나요?

평의원 이순일 : 결산자문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지나간 것을 생각하시면 자명한 거 아닌가요?

평의원 최인규 : 처음에 제기한 게 2월 2일 제9차 평의원회에서 제일 처음 제기를 했고요, 5월 교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그 이후에 마지막 총무처장님과 의 간담회 이후에 기자회견 해야되겠다 그래야 공개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으로 했던 것입니다.

평의원 오상탁 : 제가 우려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 대학을 잘 모르는 신문 독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아주대가 관련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대학에서도 펀드 투자를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우리학교 학생들이라도 아르바이트 하는 고등학생들한테 듣기로 ‘형, 아주대가 망했어?’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한걸음 나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호의적으로 보도하게끔 유도한다 하더라도 한번 엇질러진 물이 주워 담을 수 있느냐 하는..

평의원 이순일 :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견해를 달리합니다. 김찬영 학생이 이야기했지만, 이건 잘했냐 못했느냐가 아니고 옳으냐 그르냐의 이야기입니다.

평의원 오상탁 :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 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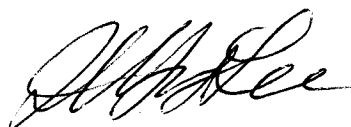
평의원 이순일 : 저는 옳고 그름 앞에서 이익을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평의원 오상탁 : 아, 그럼 더 이상!

평의원 이순일 : KBS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립대학들의 펀드투자 문제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혹시 그 보도 보셨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오상탁 : 네, 봤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앞으로 이 일들은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차라리 우리대학 처럼 공개되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데가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평의원 오상탁 : 글썄요.

평의원 이해진 : 기자들 속성을 볼 때 잘했다는 것보다는 문젯거리를 많이 사회 문제화 시키고 부각시키잖아요.

의장 이일영 : 큰 대학에서는 신문사에 콕 틀어막아서 안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간사 이중한 :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의장 이일영 : 네

간사 이중한 : 전 요즘 학교에서 20여년이 넘도록 근무하면서 지난해와 금년처럼 학교 일을 하는데 힘든 경우는 처음입니다. 물론 평의원회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이런 논의들도 우리가 내부적인 신뢰가 쌓이지 않으니까 생기는 데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길거리 축제 때 가장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모인 시간쯤에 갑작스럽게 무대에 스크린을 올려놓고 펀드와 관련한 MBN 방송을 틀면서 학교의 문제를 홍보하는 걸 봤을 때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사실하고 다른 부분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 하는 점에서 가슴이 아팠고.. 오늘 이 점들도 저는 개인인 생각이지만 학교는 왜 속 시원히 말 못하고, 여기서(평의원회)는 왜 지켜주지 못할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성원이라면 해야 할 일인데.. 저는 사실 요즘 괴롭습니다. 공문을 보시면 양쪽 다 제 이름이 있습니다. 한쪽은 기획팀장이고, 한쪽은 간사입니다. 이번같은 상황에서선 저를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평의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의원회가 좀 더 학교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자문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지려면 조직의 운영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일영 : 사실은 나도 질문 중 하나인데 기획팀장이 여기 간사로 온다는 건 누가 정했어요?

간사 이중한 : 대학 평의원회 자체가 처음 생기면서 룰이 없으니까 많은 대학들이 규칙을 만들면서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주요정책 자문성격이 강한 것이다 보니까 학교의 기획팀에서 하는 것이 양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된 부분으로 봅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까 이해진 의원이 말씀하신 이사장님 공문이 그런 겁니

< 간서명 란 >

의 장





다. 회의자료 24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학교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지라도 조직질서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교발전에 해가 될 수 있으니 학내의 모든 기구는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기 바랍니다.’ 라는 구절은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산하의 위원회 정도로 보는 것으로 읽힙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건 잘못된 거죠.

의장 이일영 : 이사장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이사회의 지도편달을 받아야 그런 그 입장으로 있어요. 지난 십 년 동안 계속 느낌이 그런 느낌인데 그런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결국 여기서는 얼굴 붉히고 야단하고 저쪽에서는 왜 까불어 너희들은 지도편달의 대상인데 무얼 하려고해? 이제 그런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회의가 드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죠.

평의원 이순일 : 아까 최인규회장이 제기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까요? 평의원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일이 또 재발하는 것을 원하시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의장 이일영 : 우선 저 이번에 결산(안)이 교과부에 접수되는 걸 막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 이중한 : 결산(안)은 대학정보공시제 이후 6월1일까지 웹상으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감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 이일영 :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에는 평의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간사 이중한 : 붙임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결산 때가 되면 교과부에서 내려 보내는 지침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근데 지금 이거 없이 가도 자기네가 받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사 이중한 :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압니다.

의장 이일영 : 거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겠네요?

평의원 김관균 : 정확한 패널티가 대학평의원회의록 사본이 첨부 안됐을 때

< 간서명 란 >

의 장



에 어떤 패널티가 있는 것인지, 6월1일 까지 결산보고가 안됐을 때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그것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의 어떤 패널티와 맞물려가지고..

평의원 김찬영 : 6월1일 까지 안 했을 때는 패널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간사 이중한 : 7페이지에 지난번에 평의원님들께 안내해드린 문서의 전문을 보시면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간사 이중한 : 돈은 500만원 인데 문제는 우리가 교과부 사업을 신청하여 평가 받을 때는 행정제재로 인한 벌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의원 김관균 : 벌점을 먹으면 평가 체크리스트에 마이너스, 벌점 먹은 경험 있으면 마이너스 몇 점.

평의원 이순일 : 굉장히 걱정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완전히 벼랑전술인 거죠. ‘이걸 안 하면 학교의 모든 평가에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랬을 때 우리가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교과부에 결산을 제출할 때,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이 없으면 아마 사유서가 붙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듣던 것처럼 ‘평의원회에서 혹시라도 심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산을 그대로 받아준다’ 라고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이걸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재단이 직접 보냈으니 확인할 수 없다고 대학본부가 주장하면, 교과부에서 직접 확인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는 결산자문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전달하던지 해야 할 텐데, 이는 굉장히 고민되는 선택입니다.


평의원 김관균 : 사회생활 하면서 절차나 형식 같은걸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회의하면서, 첨부되어야 하는데 첨부 안되어 제출되는 것이 신기합니다.

의장 이일영 : 우선 말이죠. 결국은 재단을 상대해야 하는 것인데, 재단에 절차상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서한을, 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면 우선은 그것을 결정합니다. 내용에 어떤 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지적하는 건 지적하고, 어떠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지, 물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야 뭐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그 외에 어떤 문구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견 주십시오.

평의원 김관균 : 그것보다 재단에서는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생

< 간서명 란 >

의 장



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이일영 : 그렇게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평의원 김관균 : 질문부터 해야죠. 그렇게 한 것이 어떠한 형식과 절차에 정당한 것인지 질문부터 해보고, 어떻게 해서 그게 정당한 절차가 될 수 있는지 질문부터 해보고 답변을 받고 나서..

의장 이일영 : 일차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되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을 달라. 그거를 먼저 보내자.

평의원 김관균 : 재단측에서 나름대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부터 받아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더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 우선 그걸로 끝일까요?

평의원 김관균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 이일영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공문을 보내되 공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절차상의 잘못된 것이 어떻게 재단에서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받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평의원 이해진 : 또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 그 내용을 총장한테 보내서 재단의 의사를 물어서 가져와라. 아닌가? 학교법인 대우학원에서는 총장하고 상대를 하는 격이고, 평의원회 자체가 학내 기구 맞죠?

의장 이일영 : 네, 대학기구죠.

평의원 이해진 : 저는 그럼 총장한테 말씀 드리고, 총장이 이사장하고 상대하는 게 맞지 저희가 건너뛰어서 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총장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같이 얘기를 하는게 맞지, 총장의견을 제외하고.. 저희는 또 총장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한테 대학평의원회에서 공문 접수시키고 그 내용의 표현을.. 재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한 바가 없다.

의장 이일영 : 그게 참 애매한데, 여기에 간사로 기획팀에서 들어와 있단 말이죠. 모든 서류를 만들 때 기획팀의 간사가 총장한테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렇지만 여기 명의는 평의원회 의장명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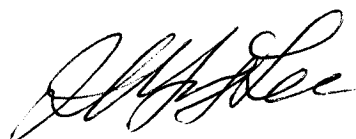
의장 이일영 : 의장 명의로만 해서 보낼까요? 괜찮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네

의장 이일영 : 그럼 그렇게 하죠. 의장 명의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간서명 란 >

의 장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총장을 드리자.

평의원 김찬영 : 보내시는 건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의사가 있었으면, 중재하실 의사가 있었으면 진작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보내는 건 보내시되 기대하는 답변은 큰 소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 생각에는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거라 총장님이 여기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꾸만 그 내용을 저희 쪽이 푸쉬를 함으로써 총장님도... 왜 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려 하나 이거죠. 상대방에 넘기고 그 쪽 행동 보고서 우리가 행동하면 되죠.

평의원 김찬영 : 이해진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작년부터 계속 제가 학생회장 할 때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의원회 문제 다뤄온 문제이고요 계속해서 총장님과 독대하면서 다뤄온 문제인데도 지금 이제 2년이 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한 마음 말씀드린거고요. 공문은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어떻게 나가는게?

평의원 김찬영 : 아까 전에 총장명의로 말씀하신대로..

평의원 최인규 : 또 한 가지 명확하게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대학 평의원회에서 결산자문을 거부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그것도 지금 구두로 설명이 되는 건데, 그러한 내용들이 답변으로 올 때.. 명확하게 재단쪽에서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했는지 입장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평의원 최인규 :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되어서, 평의원회에서 거부로 못 받았다는 답변이 예상이 좀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걸 예상답변을 생각해보고 명확하게 기재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럼 아예 총장님 답을 받아놓죠. 그 다음에는 결국 평의원들께서, 동문들께서도 동문들께 저희는 정말 거부한 적도 없고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렇다. 직원회에서도 학생회에서도 각자가 저희 대표하는 기관들에게서 그걸 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중한 : 제가 지금 협약 관계로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자리를 먼저 비워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일영 : 저는 한 시간 이상 회의를 원래 안 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그런걸 거부하는 사람인데 평의원회만 오면 3시간을 넘깁니다. 저도 지금

< 간서명 란 >

의 장



점점 기력이 소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장님께 서한을 보내는 걸로 하고, 그 내용은 우리는 거부한 적이 없다는 걸 확인을 시키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재단측의 답변을 달라는 언어 내용의.. 날짜를 정해요? 언제까지 넣어 달라고? 우리 다음 만날 날을 정할까요?

의장 이일영 : 6월 22일날 어떻습니까? 22일 월요일 괜찮습니까? 그럼 제1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는 2009. 6.22(월) 15:00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회에서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은 그 전주에 회신을 받는 것으로 전제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 결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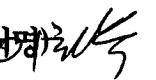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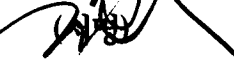

- 제1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개최 예정: 2009. 6.22(월) 15:00
  - 안건: 대학발전계획 및 비전에 관한 사항
- 2008학년도 교비회계결산(안) 자문을 거부한 적이 없음을 확인시키고, 평의원회 자문없이 결산(안)이 처리된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총장께 서한을 발송하기로 함

< 간서명 란 >

의 장



2009년 06월 05일

의 장	이 일 영	(서명) 
부 의 장	이 원 희	(서명)
평 의 원	유 승 화	(서명)
평 의 원	이 순 일	(서명)
평 의 원	유 승 익	(서명)
평 의 원	오 상 탁	(서명) 
평 의 원	이 화 숙	(서명) 
평 의 원	최 인 규	(서명) 
평 의 원	김 찬 영	(서명) 
평 의 원	김 관 균	(서명) 
평 의 원	이 해 진	(서명) 
평 의 원	박 상 호	(서명)
평 의 원	박 윤 규	(서명)
간 사	이 중 한	(서명) 
기 록	진 성 호	